

설날

글 | 박철주

그림 | 조예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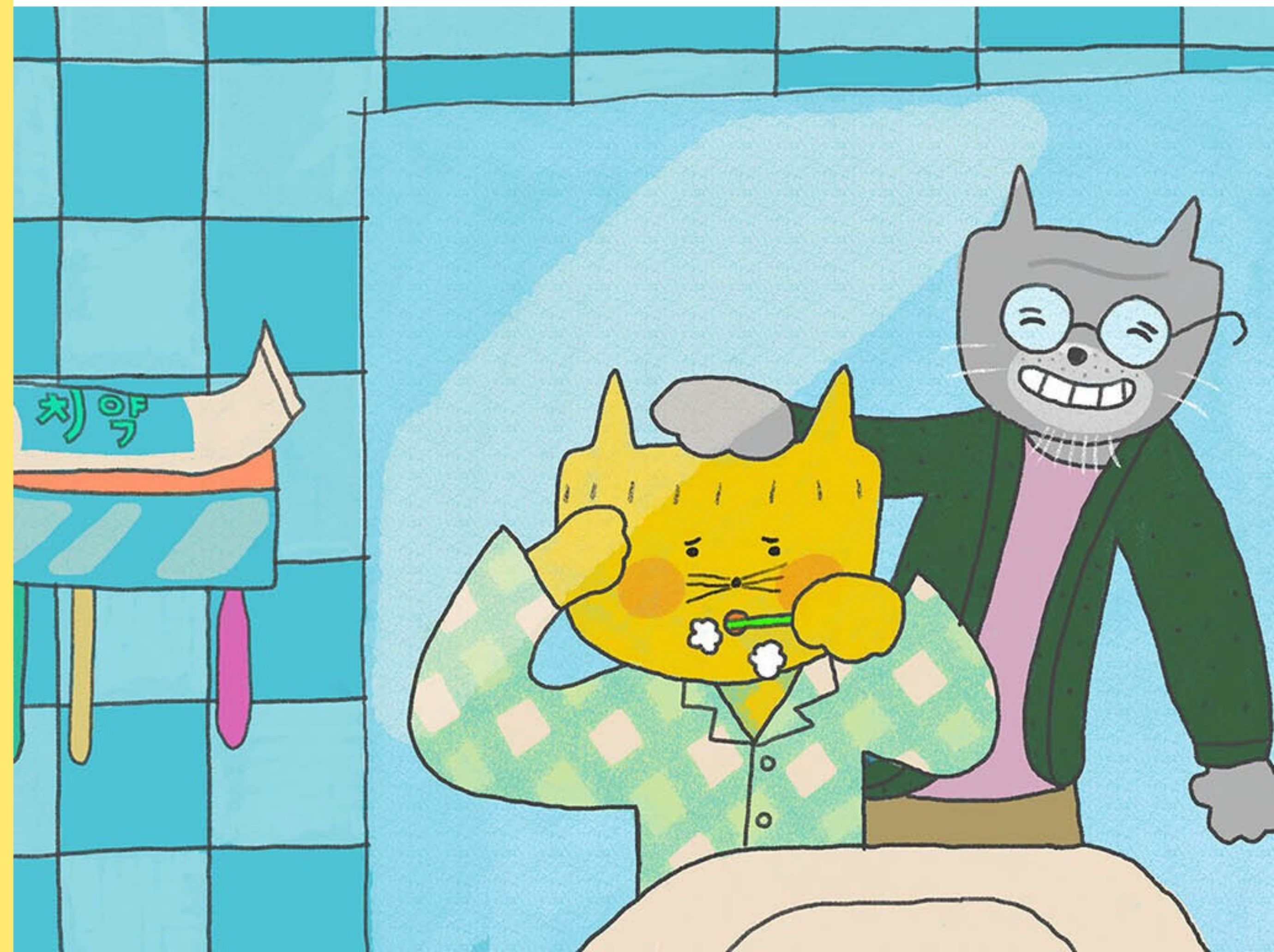
글 | 박철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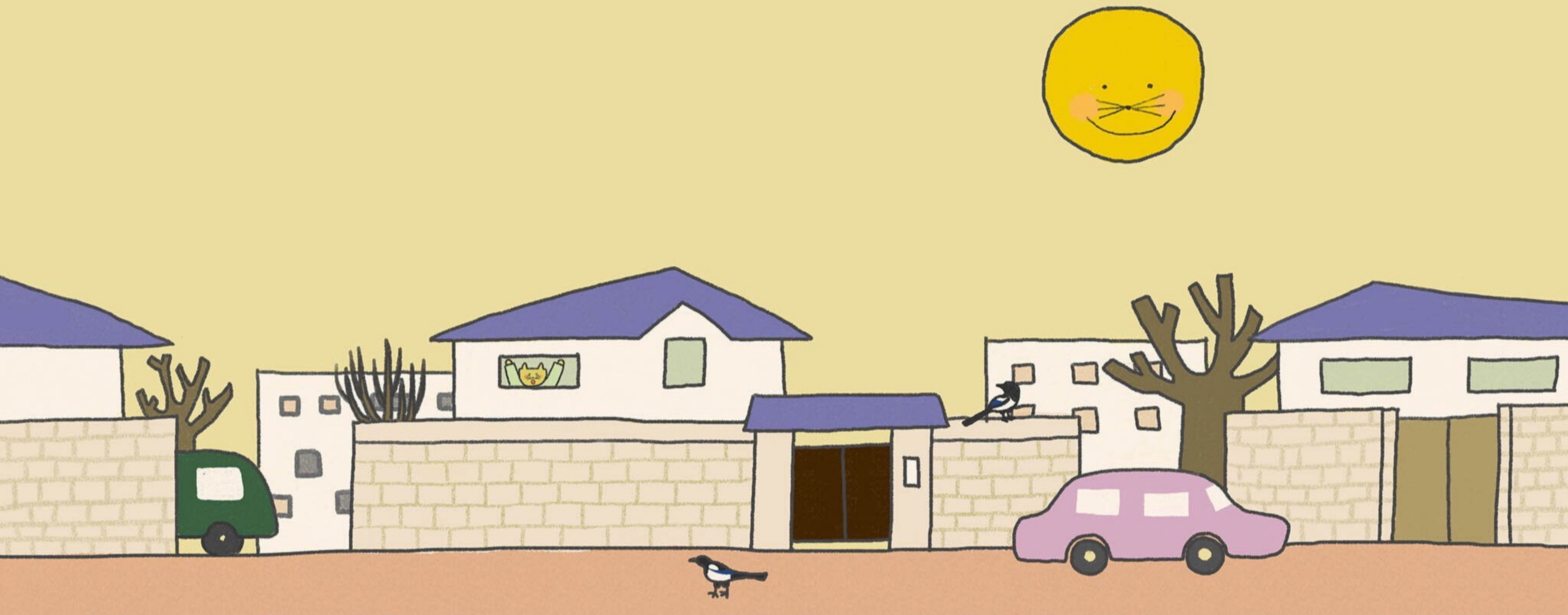
그림 | 조예원

편집 | 김은파, 이수인, 이정아

편집 디자인 | 이해명

목소리 | 황창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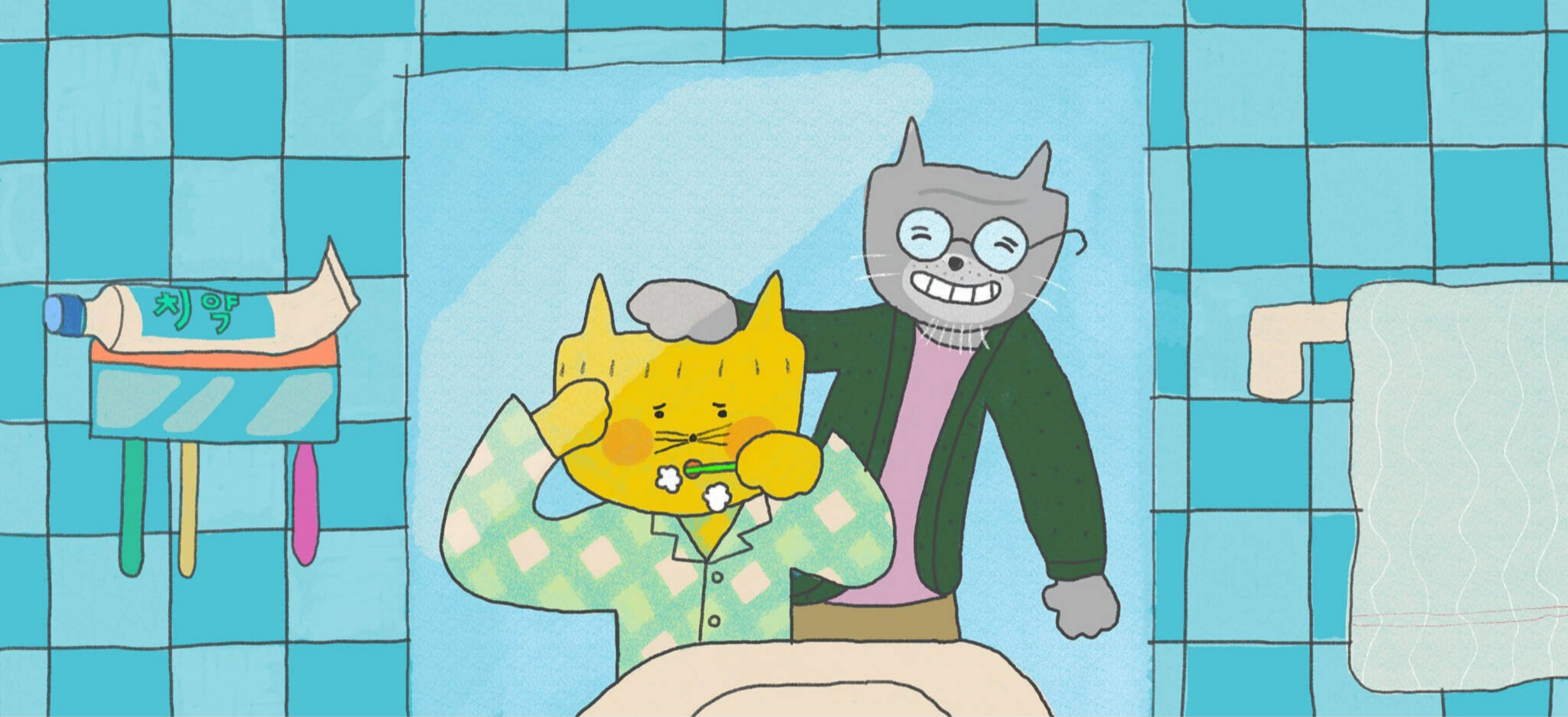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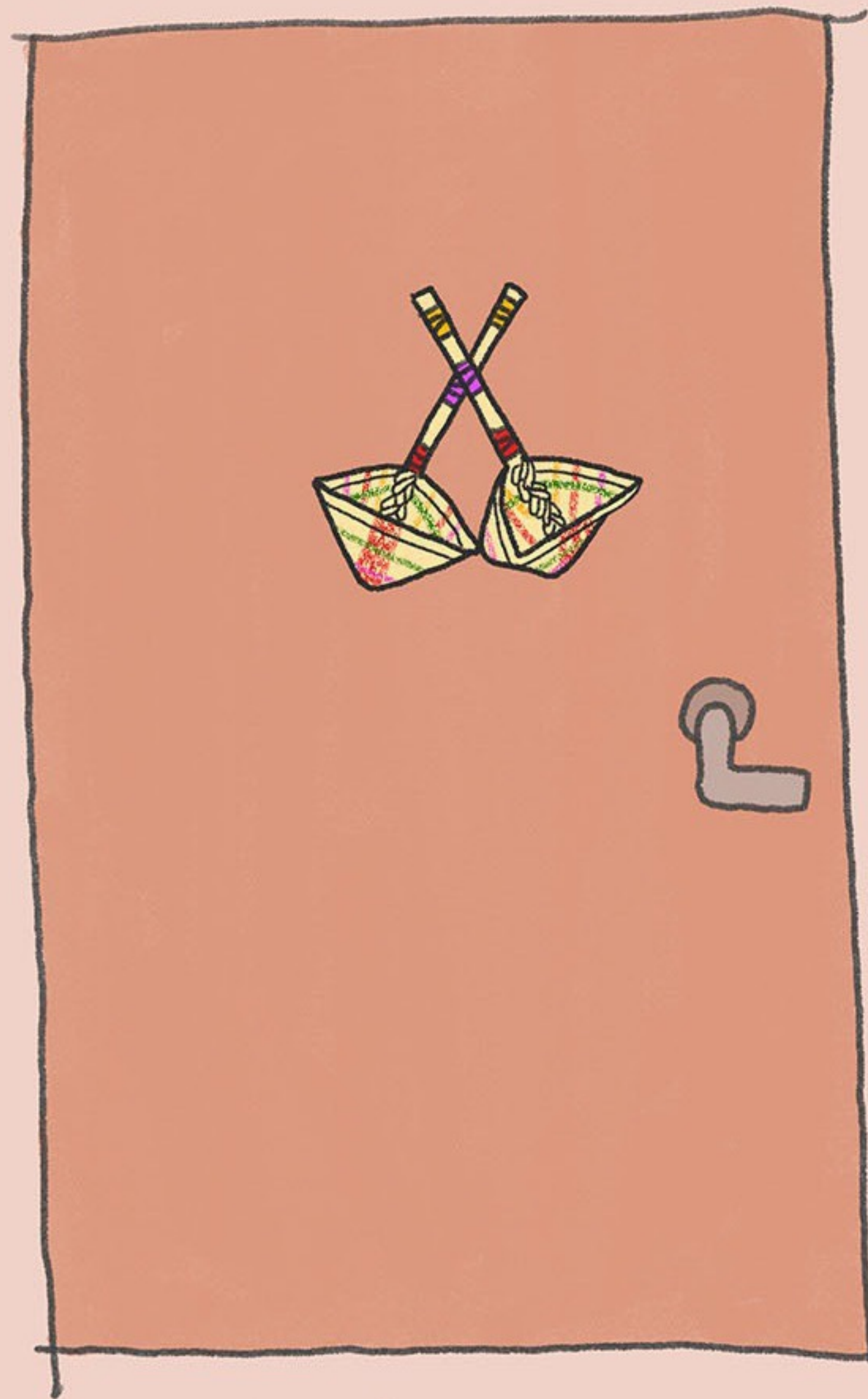
어제는 설달그믐,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요
오늘은 새해 첫날, 설날이에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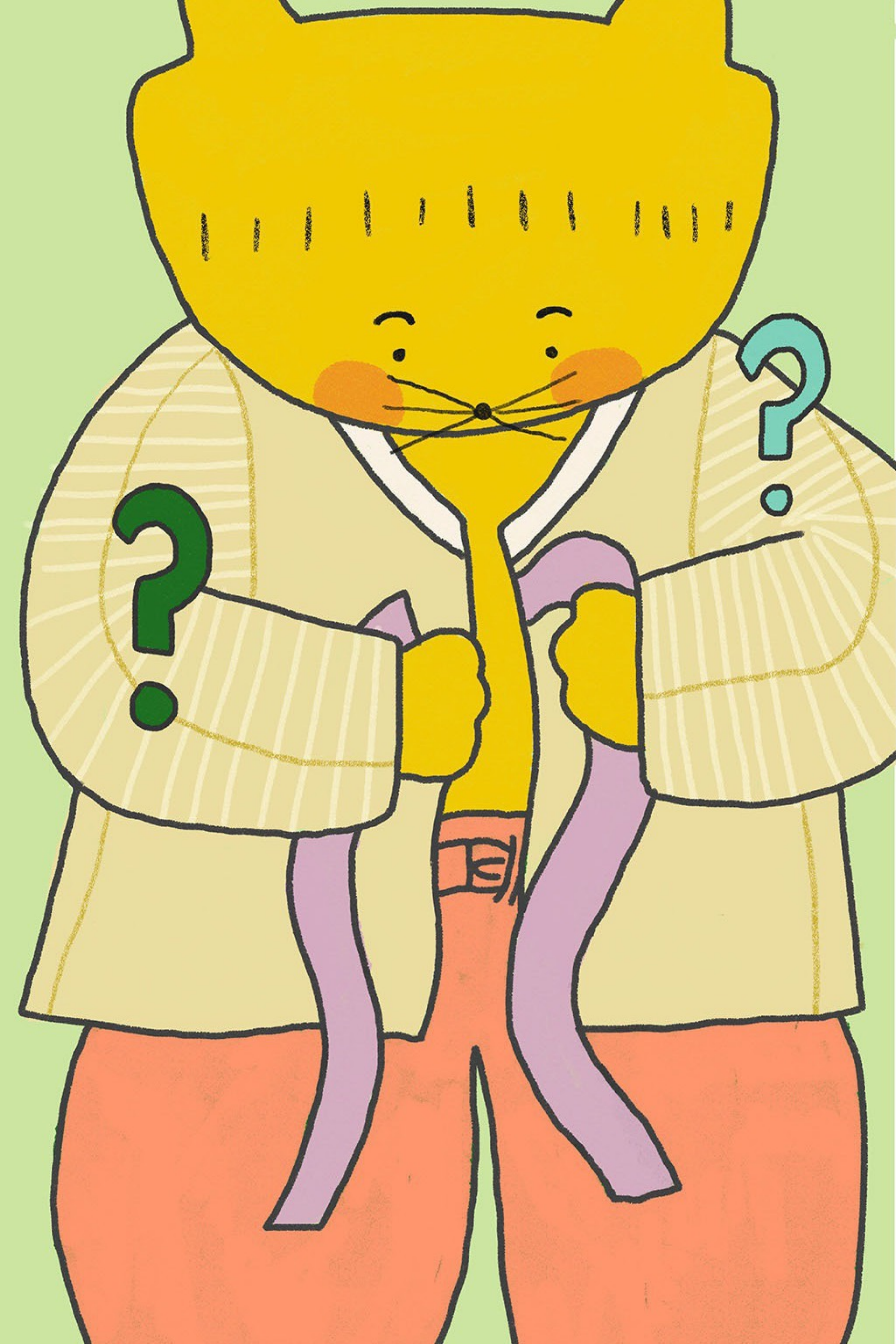
“눈썹 하얘졌다!”
설달그믐 밤에 잠들면
눈썹이 하얘진대요.



거울을 보니 눈썹은 그대로예요.
“에이, 할아버지. 거짓말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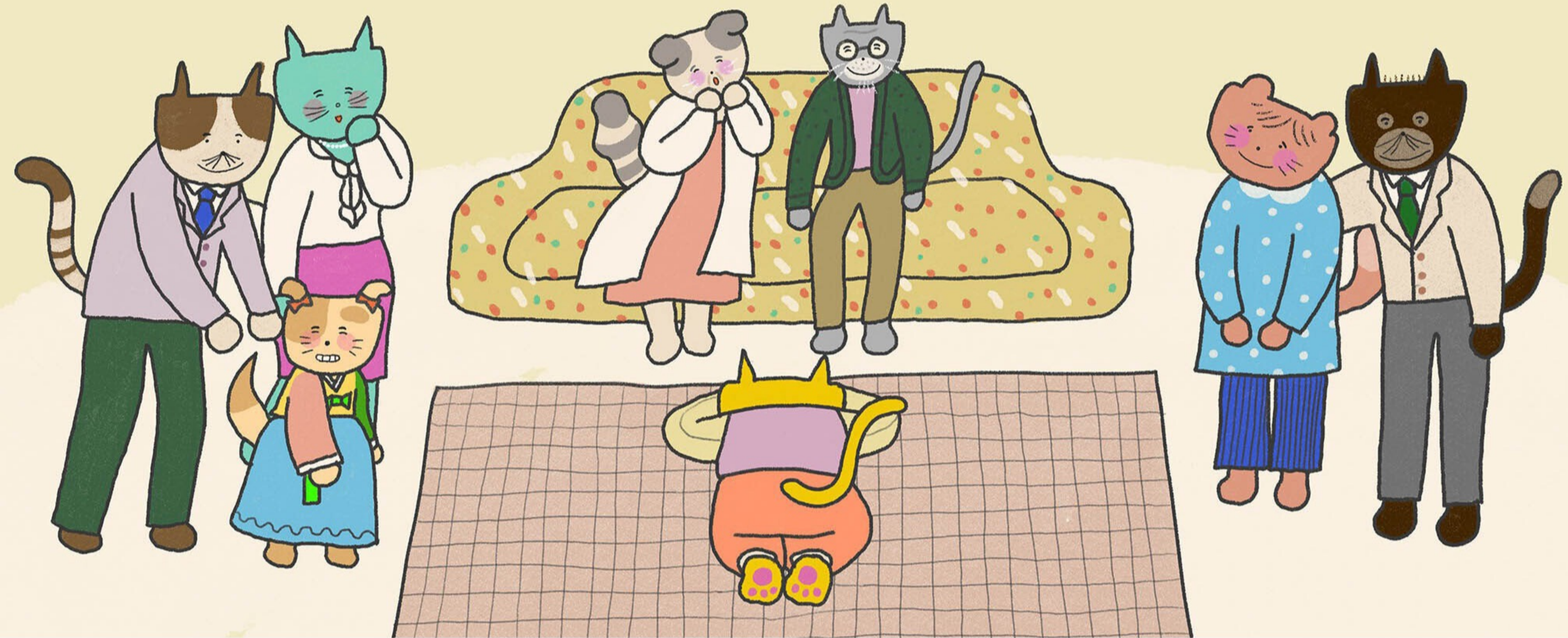
할아버지께서 이른 새벽에
복조리를 걸어 두셨어요.
복조리가 복을
가져다준대요.



설빔을 입어요. 헐렁한
바지를 입고 허리끈을
묶어요. 발목에 대님도
매고요. 저고리도 혼자
입었어요.



고름을 매는 건 엄마가
도와줘요. 복주머니도 달고
저고리 위에 배자도
입었지요.



어른들께 세배를 드렸어요.

“새해 복 많이 받고, 건강해라.”

어른들께서 덕담을 하며 세뱃돈을 주셨어요.



떡국을 배불리 먹고, 전이랑 약과도 먹고, 식혜도
마셨어요. 윷놀이도 했지요.



새해 인사 오셨던 친척들이
모두 돌아가셨어요.
복주머니를 열어보니
세뱃돈이 꽤 많아요.



벌써 달님이 떴네요.

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
“설날” is licensed under CC BY 4.0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.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, visit 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/>.

© 2019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